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전문가 기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
ESG 거버넌스로 돌파하라
규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 ESG 주요 현안

지속가능성 공시 시대의 개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기업의 준비 과제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통계 지표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2026
MAR

2026년 정기주주총회, ESG 거버넌스로 돌파하라

규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유하은

한국회계기준원 팀장



2026년 3월, 본격적인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격 적용되는 첫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겹치며 기업 경영진은 전례 없는 복합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치르던 주총 준비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1.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 - 무엇이, 언제 바뀌는가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해 7월 22일 공포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4대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2026년 3월 주총은 이미 새 법 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2026년 하반기와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 조항이 발효됩니다.

<개정 상법 단계적 시행 로드맵>

2025.7.22 (시행 중)	2026.7.23 (D-4개월)	2026.9.10 (D-6개월)	2027.1.1 (D-10개월)	입법 추진 중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강화된 3% 룰 시행	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출2인	전자주주총회의무화 (자산2조↑)	자기주식소각의무화 (3차개정)

* 2025.8.25 통과 2차 개정안(공포 2025.9.9, 시행 2026.9.10) 포함. 3차 개정(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은 입법 진행 중.

<4대 핵심 개정 조항 상세>

개정 조항	핵심 변화 내용	시행 시기	실무 영향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382의3)	이사 의무 대상 '회사' → '회사 및 전체 주주' 확대. 합병·물적분할·유상증자 등 자본거래 시 소액주주 이익 고려 법적 의무화	2025.7.22 (즉시 시행)	● 최고: 이사회 의사록 재설계 필요
사외이사 → 독립이사(명칭·선임기준 강화)	선임비율 1/4 → 1/3 상향. 독립성 심사 강화. 이번 주총에서 선제 선임 가능	2026.7.23 (D-4개월)	● 높음: 이번 주총 선제 선임 가능
감사위원 합산 3% 룰 강화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 제한 적용. 대주주 영향력 대폭 제한	2026.7.23 (D-4개월)	● 최고: 표대결 시뮬레이션 필수
감사위원분리선출 2인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명 → 2명 이상 분리 선출 의무화	2026.9.10 (D-6개월)	● 최고: 이번 주총 처리 권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불가. 소수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경로 법제화	2026.9.10 이후 (이사 선임주총부터)	● 높음: 이사 정원·임기 재설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현장병행형 전자주총 의무화. 소수주주 참여 채널 확대	2027.1.1	● 중간: IT 인프라 준비 선행

2026년 정기주주총회, ESG 거버넌스로 돌파하라

규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2. ESG 관점 진단 -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위험인가

이번 상법 개정은 표면적으로 주주권 강화라는 긍정적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전문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개정안이 단기 주주 수익 중심의 '주주 자본주의'를 과도하게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중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균형이라는 E·S·G 핵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ESG 친화적 요소 (기회)	! 反ESG 잠재 요소 (위험)
이사회 독립성·투명성 강화 측면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G(지배구조) 실질화 > 소수주주 보호 강화 → 사회적 공정성 제고 > 전자주총 → 탄소 절감·접근성 향상(E+S) > 감사위원 독립성 → 재무 투명성·내부통제 강화 > 주주 충실의무 → 이해상충 구조 해소 촉진	단기 주주 자본주의 심화 측면 > 단기 배당·자사주 소각 압박 → 장기 ESG 투자 약화 > 행동주의 펀드의 단기 차익 추구 → R&D·ESG 투자 저해 > 소송 남발 우려 → 이사회 보수적 의사결정 경직화 > 주주 vs. 임직원·지역사회 이익 충돌 가능 > 노란봉투법 맞물린 노사관계 리스크 복합화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의 충돌입니다. 글로벌 ESG 기준인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와 ISSB 기준은 기업이 주주만이 아니라 임직원·공급망·지역사회·환경 등 다중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상법은 이사의 의무를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자칫 이사회가 E(환경)·S(사회) 투자를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기피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회는 공급망 노동 이슈, 하청 노사 분쟁에 대한 실질적 책임까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CSDDD(EU 공급망 실사 지침)와 맞물려 한국 기업에 글로벌 수준의 인권·노동 실사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단기 주주환원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사회는 장기 ESG 투자의 가치를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규제를 방어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ESG 전략 자체가 장기 주주가치임을 입증하는 것이 오늘의 이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 ESG 전문가 시각, 2026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3. 이사회에 새로운 의무 -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는 단순히 '좋은 경영 판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사는 그 판단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한 것임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 의사록, 위원회 검토 보고서, 외부 자문의견서의 중요성이 법적 증거로서 전례 없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ESG 거버넌스로 돌파하라

규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이사회 의사결정 유형별 요구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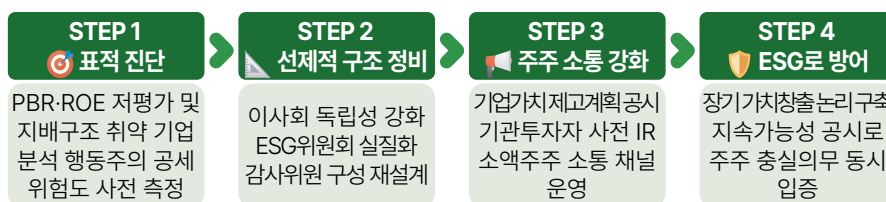
의사결정 유형	기존 요구	개정 후 요구 수준	비고
합병·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특별결의	소액주주 이익 침해 여부 법적 검토 + 외부 의견서 필수	법적 위험 고
유상증자·자본 거래	이사회 결의	전체 주주 이익 균형 검토·의사록 상세 기재	법적 위험 고
관계사 내부거래	이사회 사전 승인	독립이사 특별위원회 검토, 공정가격 검증 필수화	법적 위험 고
임원 보수 설계	보수위원회 결의	TSR(총주주수익률) 연계 KPI 공시, 장기 인센티브 구조 설명	공시 리스크
ESG 관련 투자	재량적 결정	장기 주주가치 연계성 논리 사전 구축 필요	ESG 전략 핵심
자사주 취득	이사회 결의	3차 개정 시 1년 내 소각 의무화 예정, 처분 계획 사전 공시	3차 개정 대비

ESG 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 상법 개정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ESG 위원회에서 검토한 환경·사회 투자의 장기 재무적 가치(TCFD 기반 기후 리스크 분석, 공급망 인권 리스크 분석 등)를 이사회 의사록에 정식 반영함으로써, 주주 충실의무 이행의 증거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ESG 공시 체계가 곧 이사회 방어 논리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4. 행동주의 펀드 대응 전략 - ESG가 방패다

2026년 주총 시즌을 앞두고 팰리서캐피탈(LG화학), 얼라인파트너스(DB손해보험·코웨이), 트러스트자산운용, KCGI자산운용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개편, 감사위원 후보 직접 추천,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속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제 단순한 '배당 압박'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진화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대응 4단계 전략>



핵심은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를 단순히 거부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ESG 전략을 통해 장기 주주가치 창출의 서사를 먼저 주도하는 것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PBR 개선 계획, 중장기 ROE 목표,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전에 공시한 기업은 행동주의 공세의 논리적 근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ESG 거버넌스로 돌파하라

규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5.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개정 상법의 적용 범위와 시기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규모 상장사(자산 2조 원 이상)는 즉각적인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며, 중소·중견 상장사와 비상장사도 밸류업 기초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강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2026 정기주주총회 전 필수 점검 항목

법률 대응 (즉시)

- ☐ 이사회 결의 의사록에 '주주 이익 고려 사항' 기재 체계 마련
- ☐ 합병·분할·내부거래 안전에 대한 외부 법률·재무 검토의견서 확보
- ☐ 감사위원 선임 안전 상정 시 3% 룰 합산 지분 시뮬레이션 완료
- ☐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따른 공급망 노동 리스크 법률 검토

이사회 구조 (주총 전)

- ☐ 독립이사(사외이사) 비율 1/3 충족 여부 확인 및 후보군 구성
- ☐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일정 결정 (2026 주총 vs 임시주총)
- ☐ 집중투표제 대비 이사 정원·임기 설계 검토
- ☐ ESG위원회 설치 또는 실질화 (이사회 산하 독립 위원회)

ESG 공시 (주총 이전)

- ☐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업데이트 및 PBR·ROE 목표 공개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이사회 거버넌스 섹션 강화
- ☐ 임원 보수와 ESG·장기 성과 KPI 연계 구조 공시 준비
- ☐ CSDDD/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체계 구축

주주 소통 (주총 전·중·후)

- ☐ 기관투자자 사전 IR 실시 (특히 국민연금·주요 기관)
- ☐ 행동주의 주주제안 접수 시 즉각 대응 프로세스 수립
- ☐ 소액주주 소통 채널 마련 (온라인 Q&A, 전자투표 확대)

6. 결론 - 규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전환의 기회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의 장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 상법이 촉발한 지배구조 패러다임의 전환은, 잘 준비된 기업에게는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와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결정적 기회**가 됩니다.

ESG 전문가 관점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개정 상법에 내재된 반ESG적 위험—단기 주주 수익 집착, 이해관계자 균형의 훼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ESG 전략 자체를 '장기 주주가치 창출의 언어'로 재서술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환경 리스크 관리가 중장기 재무 건전성임을, 공급망 인권 실사가 법적·평판 리스크 방어임을, 이해관계자 소통이 지속가능한 기업가치의 근거임을 주주와 이사회 모두가 이해해야 합니다.

신뢰는 개별 안건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이사회 운영 체계, 기업가치 제고계획, ESG 공시,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소통 구조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2026년 주총 시즌과 그 이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7.22 공포) · 2차 상법 개정안(2025.9.9 공포)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KCGS 가이드라인 ·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 EU CSDDD(2024)

지속가능성 공시 시대의 개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기업의 준비 과제



새로운 공시 시대의 시작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를 의결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우리 자본시장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라는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이하 '공시기준') 제정은 재무제표를 넘어 기업이 기후 변화와 같은 지속가능성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시해 왔으나, 보고기업의 범위, 재무정보와의 연계, 기업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해 왔다. 이번 공시기준 제정과 제도 도입 방향의 제시는 기존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관점에서 보다 일관되고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공시 시대가 개막한 만큼,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시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준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언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번에 발표된 공시기준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따라야 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개념적 기반을 제시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기업이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기준이 지향하는 핵심 목적은 명확하다. 투자자, 대여자 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홍보성 보고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기업의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현금흐름과 자본조달 접근성, 그리고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정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공시기준서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네 가지 핵심요소를 공시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이 네 가지의 핵심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머지 세 요소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된다. 전략은 식별된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다룬다. 위험관리란 그러한 전략적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 즉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니터링 하는지를 설명한다. 지표 및 목표는 앞의 세 가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지표와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공시하도록 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대의 개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기업의 준비 과제

이러한 공시기준서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S1-S2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일부 요구사항을 조정하였다.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과 일관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국내 공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선택 공시 사항으로 두었다.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기반지표 공시, 그리고 내부탄소가격의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등이 모두 이러한 선택 공시 사항에 해당한다. 아울러 데이터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초 적용일 이후 3년간 공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의 준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기준서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시기준서에서는 자발적 적용 기업을 고려해,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공시로의 전환 시 경과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의무 공시 시점을 앞두고 공시 체계를 미리 내재화하고 투자자 소통과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자발적 적용을 전략적 선택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기업의 준비 과제: 연계된 정보의 공시

이 공시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다루는 정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기업이 단순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보다 그것이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 이 연계가 없으면 아무리 잘 작성된 공시도 투자자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과제1. 연결실체 기준으로의 공시 준비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정보 간의 연계를 실현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본사나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종속기업도 포함한 연결실체 기준으로 작성된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보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두 정보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공시기준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보고기업을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실체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연결실체에 대한 공시 체계를 당장 갖추기 어렵다면, 주요 위험 요소가 집중된 종속기업이나 지리적 영역을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그 범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대의 개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기업의 준비 과제



과제2.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확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동일한 활동이 두 공시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 전환 위험에 대응하여 보유 중인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한 운송 기업을 생각해 보자. 지속가능성 공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시기, 전환에 필요한 투자 규모 등이 설명된다. 재무제표에서는 같은 계획이 보유 중인 디젤 차량 자산의 손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전환 계획으로 인해 디젤 차량의 내용연수나, 자산 손상 평가에 사용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서술한 전환 계획과 재무제표의 손상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공시에서는 2030년까지 디젤 차량을 전면 교체한다고 서술하면서 재무제표에서는 해당 차량이 2040년까지의 사용을 가정하고 손상을 평가한다면, 두 공시는 같은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동안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ESG 팀이, 재무제표는 재무팀이 각각 작성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두 공시가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더 이상 분리된 채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가정과 데이터를 활용해 공시가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양 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 준비의 핵심이다.

마치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내재 가치를 투자자에게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술적 난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공시기준서는 선택 공시와 경과규정, 비례성 메커니즘 등을 통해 기업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공시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공시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규제 대응으로서가 아닌 시장과 소통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

환경

기후 변화 대응

녹색금융

친환경 기술 혁신

기후테크·녹색산업 육성 위한 민관합동 펀드 조성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3-23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0221>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기업 ESG 지원

연합뉴스 | 2026-03-25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25029800003>

전력 배출계수 갱신 주기 1년으로 단축... 기업 온실가스 산정 지원

뉴스핌 | 2026-03-25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25000587>

기후위기에 맞설 똑똑한 물기술 부산에 모인다

임팩트온 | 2026-03-19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75>

(사)ESG탄소중립연구원·넥셀시스템, ESG '비용→수익' 전환 모델 제시

부산경제신문 | 2026-03-25 | <http://www.bseconomy.com/news/view.php?idx=54019>

'버려지는 옷으로 가구를'... 무신사, 입점사와 '의류 선순환' 가동

테넌트뉴스 | 2026-03-26 | <https://tnnews.co.kr/archives/272077>

2026년 ESG 평가 기준 강화, 기업 경영 패러다임 대전환!

시사데이즈 | 2026-03-13 | <https://www.sisadays.co.kr/news/475940>

S

사회

산업 안전

노동권

동반 성장

소비자 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떠난 동료 대신 일해도 지원금 받는다

동아일보 | 2026-03-26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26/133612821/1>

2026 인권경영과 ESG 세미나 성료..."공급망 실사 시대, 기업 생존 전략 제시"

이로운넷 | 2026-03-20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6098>

제5회 월드 ESG 포럼 '한국SGI 세션' 개최... 인간 존엄과 지속가능성 조명

매일경제 | 2026-03-26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998949>

공원에 정원형 놀이터 조성 등 미래세대 지원-지역 나눔 실천

동아일보 | 2026-03-19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319/133559154/2>

농협캐피탈, 연간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ESG 경영 강화"

중소기업신문 | 2026-03-17 |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788>

18년간 사회복지시설에 車 661대 지원

동아일보 | 2026-03-19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319/133559242/2>

[ESG 리더스] 송영록號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앞세워 ESG경영 '박차'

녹색경제신문 | 2026-03-24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59>

단순 지원에서 자생력 키우는 동반성장...공기업·민간이 함께한다

전기신문 | 2026-03-24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88>

클린사업장 조성 5400억 투입...영세기업 최대 90% 지원

K-ESG | 2026-02-19 | <https://k-esg.org/post/4247>

G

지배구조

투명 경영

주주 가치

글로벌 규제 대응

공정거래

국내 대형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대비하고 있지만 일부 부담"

연합뉴스 | 2026-03-25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063900003>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법률신문 | 2026-03-03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2>

주총 안 가도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확대

조선일보 | 2026-03-25 |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6/03/25/CUEFAPULGVEXRP5UYB4HF6TGA/

2028년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핵심쟁점 6가지

임팩트온 | 2026-03-01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031>

JYP, 2026 MSCI ESG 평가에서 'AA' 등급 획득...지배구조-환경 영역 점수 상승이 주요 요인

비욘드포스트 | 2026-03-26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3260810244026d3244b4fed_30

ESG 공시 의무화 법적 쟁점 "중대성 기준·그린워싱 규제 설계가 관건"

매일경제 | 2026-03-25 | <https://www.mk.co.kr/news/stock/11998367>

전북개발공사 2026년 ESG경영 추진...전북도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발전 선도

전북도민일보 | 2026-03-25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865>

ESG 통계 지표

2026년 3월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2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6. 2월
녹색채권	308	310	314	317	328	328	326	319
사회적채권	1,741	1,751	1,769	1,763	1,772	1,799	1,811	1,815
지속가능채권	221	221	217	215	208	202	199	191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 분	'2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6. 2월
녹색채권	258	264	267	269	282	285	282	272
사회적채권	2,111	2,110	2,108	2,077	2,085	2,102	2,108	2,104
지속가능채권	160	158	158	159	159	151	149	144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	38	78	131	161	204	226	-

자료: KRX ESG 포털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배구조보고서	213	224	231	355	380	530	549	15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 ('25.12)

*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	6	14	27	36	36	36	36
글로벌	204	269	335	393	426	439	446	44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담당자 및 문의처

최영준 연구원 | E. cyj@korcham.net

*지속가능경영원